



오늘의 날씨와 생활

2월 16일 목요일 음 1월 26일 (3월)

기상정보

흐리고 비



제주에는 흐리고 비가 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5-6°C, 낮 최고기온은 10-12°C로 전망된다. 해상에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동반하겠으니 조업 중인 선박은 풍랑에 유의해야겠다.

Table with 3 columns: Time (오전, 오후), Location (제주, 성산, 고산, 서귀포), and Precipitation Probability (60%).

Table with 2 columns: Time (해돋이, 해질, 물때, 만조, 간조) and Duration (07:18-18:18, 03:44-13:28, 08:01-19:16, 00:37-14:22).

식중독지수 주의, 감기가가능지수 관심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흐림 4/14°C, 모레 흐리고 비 11/18°C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월드뉴스

튀르키예 강진 사망자 4만1000명 넘겨

“100년 내 유럽 최악 참사”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의 사망자가 4만1000명을 넘어섰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시리아튀르키예 카흐라만마라수 상공에서 찍은 사진. 연합뉴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발표한 튀르키예 공식 사망자 수 집계(3만5418명)에 시리아 국영 사나통신이 전한 시리아 정부 통제 지역 사망자 수(1414명),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UNOCHA)이 발표한 시리아 반군 지역 사망자 수(4400명)를 더한 수치다.

앞서 AP·AFP통신 등은 시리아의 사망자 수를 전하면서 튀르키예 공식 집계와 시리아 당국·반군 지역 ‘하얀 헬멧’ 구조대 등의 통계(3688명)를 인용, 이날 기준으로 사망자 수가 아직 4만 명을 넘지

않았다고 보도했으나 WP의 경우 시리아 사망자 수를 더 크게 집계한 UNOCHA 발표를 인용해 통계치가 더 커졌다. 지금까지 집계된 사망자 규모만으로도 이번 대지진은 튀르키예 역사상 최악의 참사로 기록되게 됐다. 한스 클루게 WHO 유럽사무소 국장은 이번 튀르키예 지진에 대해 “유럽지역에서 발생한 100년 내 최악의 자연재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리일보 제주 대표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건일 편집국장 이윤형.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목요일론



양상철 융합서예예술가 문화칼럼니스트

얼마 전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시 한경면 저지문화지구 내에 제주 출신 작가로 처음 추진되는 ‘(가칭) 중광미술관 건립 계획’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공립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에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보도에 의하면 “중광미술관의 기본 방향을 다양한 시도를 품은 경계와 제약이 없는 미술관으로 정하고, 중광의 재발견에 중점을 둔 상실 전시안을 내놴”고 한다. 중광의 삶과 예술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미술관건립에 대한 지역 여론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점

중광(重光)의 예술과 ‘중광 미술관’ 건립에 대하여

에서도 해결할 부분이 없지 않을 것 같다. 제주도는 부적정 사유로 지적된 부분들을 보완해 2025년 개관에 차질 없도록 금년 중반기 중재심을 받는다고 한다.

중광(重光, 1934-2002)은 제주시 외도 출신으로 가난 때문에 중학교를 중퇴하고 해병대를 거쳐 1960년 26세에 경남 통도사에 출가했으나, 불교계열에 애매하지 않다는 이유로 1979년 승적을 박탈당했다. 그는 체면과 위선으로 가득한 세상을 비웃고 조롱하며 기행을 일삼았다. 술 취한 후 붓 들어 그림 그리고 시를 짓는가 하면, 춤추고 흥에 겨워 걸친 옷을 모두 벗어버리기도 하고, 남근에 붓을 매달아 선화(禪畵)를 그리기도 했다.

중광은 국내 보다 국외에서 더 높이 평가된다. 1977년 영국 왕립 아시아학회 초대전에서 ‘나는 갈래’를

낭송한 뒤 ‘갈래님’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1979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랭커스터 교수가 ‘The Mad Monk’라는 책을 발간하면서 ‘한국의 피카소’라 극찬했다. 1981년 ‘미화랑’이 중광 초대전을 개최해 국내에 알렸고, 1983년 미국 록펠러재단의 초대전과 세계 유수의 매스컴에 방송되면서 유명해졌다.

중광의 작업은 서화, 유화, 입체도자, 액션페인팅, 퍼포먼스, 시문과 영화까지 다양하다. 특히 달마도(達磨圖)와 도자가 독보적이다. 중광의 삶과 종교, 예술은 일관되게 선(禪)을 코드로 한다. 선이란 정려(靜慮)한 것으로 욕망과 번뇌를 가라앉혀 진리를 직관하는 경지다. 예술의 본질도 예부터 문예관(文藝觀)을 지향해온 사상은 인간의 도덕적 교화, 품성의 도야, 사회개량을 위한 유용성으로 인간적 삶

에 기여하는 것이었다. ‘중광의 선은 세속적 성(性)에 의탁하여 보편적 윤리 관념에 벗어난다는 평가가 있다. 하지만 중광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그의 일탈은 실존적 삶의 방식과 합치하는 차별화된 예술관으로 현대미술에서 배타되지 않고 수용된다는 것이다.

미술관은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 연구, 보존하며 전시를 통해 교육적 효과를 얻는 곳이다. 이제 중광의 더 많은 작품들이 수집되고 전시계획이 보완될 것이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접어들더라도 성적 표현이 적나라한 작품들이 교육적 측면에서 어떻게 전시되어질지가 궁금하다.

‘괜히 왔다간다’는 중광의 모비명이다. 부디 중광의 세상 나들이가 괜한 게 아니었다는 징표로 미술관이 특성화돼 성공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열린마당

아파트 노후 변압기 교체·지원 사업



김경수 한전 제주본부 영업계획팀장

지구온난화 등 기후 이상 현상으로 겨울철 한파와 여름철 폭염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기간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추위와 무더위가 발생하면 각 가정에서도 냉·난방기 사용이 많아지면서 전력 사용량은 급증하게 된다. 그러나 오래된 아파트인 경우 노후 전력 설비나 용량 부족 등으로 전력 사용에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통계상으로도 준공된지 25년 이상의 노후 아파트의 정전 발생률이 15년 미만의 아파트보다 7.4배나 높다. 정전 발생의 주요 원인은 아파트 구내 변압기 노후와 전기설비 불

량, 전기설비 관리 소홀로 나타났다. 이처럼 노후화된 변압기와 전력설비로 인해 발생하는 정전, 화재 등 각종 문제의 예방을 위해 한국전력은 지난 2005년부터 ‘고압 수전 아파트 노후 변압기 교체·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고압 수전 아파트 노후 변압기 교체·지원 사업’의 대상은 변압기 설치 후 15년 이상 지난 아파트 중에서 평가항목(노후도, 세대당 용량, 아파트 가격 및 전용면적)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선정된 아파트에는 변압기와 저압 차단기 교체 비용 중 자재 금액의 80%를 지원한다.

도내 15년 이상 경과 된 신청 대상 고압 수전 아파트는 109개 단지로 전체 아파트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노후화됐거나 용량이 부족한 변압기를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라면 정전 사고를 예방하고 전력설비 교체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후 위기 시대 자연보호 활동의 중요성



강희철 자연보호중앙연맹 표선면지회장

기후위기 시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지난달 자연보호중앙연맹 표선면지회 창립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녹지직으로 공직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필자가 회장직을 맡게 됐다. 많은 지역주민들과 자연보호단체에서 관심을 가져 주어 행사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

‘탄소중립 자연이 살아야 우리가 산다’라는 슬로건으로 시작한 자연 보호활동은 기후 위기 시대

선택이 아닌 필수 활동으로, 비록 자연보호단체만이 아닌 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적극 대응해 임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기후 위기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창립 행사일에 번영로 일대 쓰레기 줍기 등 작은 실천부터 시작했고 회원 확충을 통해 향후 섬 속의 섬 가파도 식물 식재사업, 쓰레기 재활용 시설을 견학하는 쓰레기 여행 추진, 불평한 여행법 소재 찾기 등 소소하지만 다방면에서 자연과 지구를 살리는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이 없으면 경제도 없다. 자연보호 활동만이 기후 위기 시대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 나 한 명이 움직이면 그 뒤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진리를 깨닫고 우리 모두 자연보호활동에 앞장섰으면 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레드향 1~5년생.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품질이 우수한 국내육성 [신품종] 감귤 포트묘목 분양. 과수우량품종 [1~3년생]. 국내육성 신품종. 농업회사법인(주)장원농장. 010-4450-4316 / 010-6550-4316

감귤묘목·포트묘목 분양. 만감류, 극조생 & 조생, 포트묘목. 민성종묘. 010-3694-5423 / 010-8948-1082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SOLUTION 제공. 티엔정보기술(주). 064)722-0992, FAX (064)725-0993